

바다를 향해 펼쳐지고, 산으로 둘러싸인 일본의 위대한 변방, <오스미(大隅)>의 역사!!!



해상 교류의 요충지

일본은 3세기반부터 약 400년간을 고분의 시대라고 한다. 당시 중심은 긴키 지방(관서 지방, 오사카 주변)이었다고 여겨지지만, 거기서부터 약 500km 이상 떨어진 여기 오스미 반도는 남방과의 해상 교류의 접점으로써 중앙정권에게 중요한 토지였다. 당시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는 국가 지정 사적 쓰카자키고분군(塚崎古墳群)이 있는데 기모쓰키정(肝付町)에 위치한다. 제16호분인 오스미 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고분이고, 일본 본토 최남단의 전방 후원분인 제 39호분과, 1,300년 된 늑나무가 뿌리 내린 제1호 고분도 볼 만하다. 대부분의 고분들이 산이나 밭 속에 묻혀 있어 가끔 밭을 일구고 있는 도중에 유골이나 석화살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사진 : 쓰카자키 늑나무

塚崎の大楠

MAP①

제1호분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늑나무. 쓰카자키오쓰카신사(塚崎大塚神社)의 신목. 추정수령 1,300년 이상. 높이 약 25m, 둘레 약 14m. 견학 자유.

기모쓰키정립역사민속자료관

肝付町立歴史民俗資料館

MAP②

옛 도구와 쓰카자키고분군에서 출토된 유적을 중심으로 고고학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① 9시~16시 반

② 무료

③ 매주 월요일, 법정휴일, 12월 28일~1월 4일

©기모쓰키정

견고한 산성의 주인 기모쓰키씨 (肝付氏)

산세가 험한 오스미는 중세에 기모쓰키씨(肝付氏)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12세기 말에 권력을 잡은 후 전국시대에는 시마즈씨(島津氏)랑 영토를 가지고 경쟁했다. 16대의 가네쓰구(兼統)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오스미보다 더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으나 그의 사후에는 기모쓰키씨는 쇠퇴하고, 시마즈씨의 시대로 변한다.

고야마산성터 高山城跡

MAP③

기모쓰키씨의 성으로 건축 연대는 불명. 3개의 강에 둘러싸인 산성으로 한번도 성이 함락된 적이 없다. 건물은 소실되었지만, 산성을 걸으면 당시의 위용을 떠올릴 수 있다. 견학 자유.

조코지유적의 기모쓰키씨 역대 묘지

MAP④

盛光寺跡の肝付氏歴代の墓

1272년 기모쓰키씨의 보리사로 5대 가네이시(兼石)가 창건. 8대 가네시게(兼重)부터 17대 요시카네(良兼)까지 12대, 250년간의 고야마성의 성주가 모셔져 있다(3명은 소실). 견학 자유.

무너진 절, 영락한 신사

메이지 유신에 의해 무사의 시대가 종료되고, 일본은 본격적인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동시에 내셔널리즘도 진행되어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해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사원을 폐쇄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 일본 대부분의 사찰이 파괴되었다.

한편 신사는 건물이 소실되거나 후계자가 감소해 계승되지 못한 자료가 많지만, 그 중에는 수 백 년을 이어온 전례행사를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신사도 있다.

도류지터 道隆寺跡

MAP⑤

1246에 창건한 일본의 오래된 선종 사원.

이곳을 창건한 도류선사(道隆禪師)는 이후에 도쿄 가마쿠라를 대표하는 겐초지(建長寺)를 연다.

건물은 메이지 유신 때 파괴된 채로 현재는 복원된 석탑이 단풍이 든 나무들 속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다. 견학 자유.

시주큐쇼신사 四十九所神社

MAP⑥

984년에 반 가네유키(伴兼行)가 창건했다고 알려졌으나 상세한 자료는 소실되었다. 매년 10월 셋째주 일요일에 가고시마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인 야부사메(流鏑馬)가 신사의 앞에서 행해진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사수가 되어 9분의 화살을 쏘는데, 국가영안·오곡풍작·악병퇴치를 기원한다. 견학 자유.

당시를 알 수 있는 건축물

니카이도 주택 二階堂家住宅

MAP⑦

에도시대 무사의 주거지로 1810년에 건축되었다고 알려졌다.

오모테(응접실)와 나카에(일상공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당시의 남규슈 건축물의 특징이다.

① 9시 반~17시

② 어른 300엔, 청소년 150엔

③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가와카미중학교 목조건물

MAP⑧

川上中学校の木造校舎

1949년에 건설되어 2011년에 휴교된 교사. 건조 당시의 건축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어 국가등록유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학교 부지 내 견학 자유이나 건물 안은 출입금지.



고야마산성터 입구



도류지터 ©기모쓰키정



야부사메 ©기모쓰키정



니카이도 주택



가와카미중학교 ©기모쓰키정